

# 중공안당국, 시위자 대대적 검거 나서

휴대폰·소셜미디어 등 추적  
참가자 “필사적으로 기록 삭제”  
시위 가능 지역 경찰 대거 배치  
추가 시위 차단에도 전력

이 때문에 익명의 베이징 시위 참가자는 “필사적으로 채팅 기록을 삭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 공안당국은 추가적인 시위를 차단하는데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주요 도시의 시위 발생 가능 지역에 경찰 병력을 대거 배치해 시민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베이징에서 시위가 발생했던 랑마차오루(亮馬橋) 일대의 경우 29일 밤 가로수 대부분이 점등되지 않았으며 주변 식당도 문을 닫은 상태였다.

아울러 선전에서 29일 저녁 예정됐던 여러 곳의 도심 시위는 경찰이 미리 출동함으로써 무산됐으며, 28일 베이징-상하이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경찰과 법원, 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안당 중앙정법위원회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시위 엄단 의지를 밝혔다. 시위를 적대세력의 침투 및 파괴 활동과 사회질서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자국 내 시위와 관련해 “중국은 법치 국가이며 중국 국민이 향유하는 각형의 합법적 권리와 자유는 법에 따라 충분히 보장된다”면서도 “어떤 권리나 자유든 법률의 틀 안에서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들은 시위 참가자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내에서 영향력이 큰 일부 민족주의 블로거들은 시위가 외세에 의해 선동되고 있다면서, 2019년 홍콩 시위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보는 전날 시위를 언급하지 않은 사실을 통해 “어려울 때일수록 이를 악물어야 한다”면서 중국 당국의 코로나19 정책을 확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말로 작금의 시위 사태에 경계심을 표했다. /연합뉴스



지난 24일 10명이 숨진 중국 우루무치 화재사건 이후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던 상하이의 우루무치거리(29일(현지시간)) 경찰차들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美 SK 공장서 연설하는 바이든 대통령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베이시어의 SK실트론CSS 공장을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법안 입법에 따른 제조업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연합뉴스

## 日, 5년간 토마호크 미사일 500발 구매 추진

북한·중국 군사력 강화 대응

방위력 강화를 위해 장거리 미사일 도입을 서두르는 일본 정부가 2027년도까지 미국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최대 500발까지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토마호크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졌다. 도입 시기와 수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처음 공개됐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토마호크 구매 의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을 토마호크 우선 수출국

으로 염두에 두고 미국 내에서 판매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해 적 기지를 공격하는 '반격 능력' 보유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는 자국산 미사일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실전 배치기 이뤄질 2026년 이전에 미사일 방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토마호크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토마호크가 배치되면 한반도와 중국 일부가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일본은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의 요격 미사일용 수직발사대를 개조해 토마호크를 탑재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토마호크는 사거리가 1250km 이상으로,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 등을 이용한 '핀포인트' 공격 능력으로 목표를 파괴한다. /연합뉴스

## 하와이 화산 38년만에 폭발...60m 용암분수

1984년 폭발 22일간 분출

38년 만에 폭발한 세계 최대 활화산 하와이 마우나 로아에서 최대 60m가량의 용암 분수가 공중으로 솟구쳤다고 AP, AFP통신 등이 2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1984년 이후 처음으로 분화한 마우나 로아의 분화구에서는 지난 27일부터 3개의 틈이 벌어져 사벨린 용암과 함께 수증기와 연기 등을 내뿜고 있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은 용암 분수의 최대 높이는 "100~200피트(약 30~60m) 사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용암은 산 아래를 향해 흐르다가 현재는 북쪽 기슭 주도인 '새들로드'로부터 18km 떨어진 지점에서 멈춘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화산 폭발로 인한 인명 피해 위험은 현재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과학자들은 용암 암석과 화산재, 가스, 화산유리 입자 등이 바람에 날릴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하와이 당국도 주민 대피 명령을 발령하지는 않고 산 정상 지역과 몇몇 도로만 봉쇄했다.

데이비드 이계 주지사는 "용암이 주거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있다"며 "다만 필요시 기민한 대응과 접근 제한 등을 위해 긴급사태는 선언했다"고 밝혔다.

AP는 29일에도 공기 중에서 화산 가스와 유황 냄새가 전하해 나지만 용암류(용암이 지형을 따라 흘러내리는 현상)를 좀 더 가까이 보려는 구경꾼들이 새들로드 건너편까지 찾아오고 있다고 전했다.

하와이 화산국립공원 대변인은 "야간이나 일출 전에는 장관"이라고 말했다.

물론 과거 화산 폭발로 인해 피난 등 힘든 경험을 겪은 몇몇 주민들은 나쁜 기억을 떠올려야 한다고 AP는 전했다.

마우나로아는 하와이에 있는 6개의 활화산 중 하나로, 크기로는 세계 최대다.

이 화산은 1984년에도 폭발한 바 있으며 당시에는 22일간 분출이 이어졌다. /연합뉴스

## 美 “中, 2035년 핵탄두 1500개...한반도 비상사태 대비 훈련”

국방부, 中군사력보고서 발간

중국이 핵전력을 빠르게 강화하면서 2035년에는 현재의 3배가 넘는 수량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미국 국방부가 전망했다.

미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매년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 발간하는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군이 핵전력의 현대화, 다변화와 확장을 가속하고 있으며 그런 노력이 과거 수준을 뛰어넘는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중국이 핵무기 확보에 속도를 내면서 보유 핵탄두가 400개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현 속도를 유지하면 '군 현대

화' 목표 시한으로 제시한 2035년에는 15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미국이나 러시아의 핵탄두 보유 규모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만 빠른 속도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는 평가했다.

미국은 2020년 9월 기준 37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중국의 탄도 및 순항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대부분이 품질면에서 다른 국제 최상위급 생산자와 대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 국방부는 중국군이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비해 공중, 지상, 해상 및 화생방 훈련을 하고 있으며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중국 지도부가 북쪽 접

경 지역을 담당하는 북부전구사령부에 작전을 지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작전에는 난민 유입을 통제하기 위한 국경 장악,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확보하거나 북한을 완충지대로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이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공중-해상 봉쇄는 물론 대만 연안의 섬이나 대만 전체를 점령하기 위한 상륙 작전 등을 감행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으며, 중국군이 2027년까지 현대화 목표를 달성하면 대만과 통일을 추구하는 중국공산당에 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